

오컬트·코미디·로맨스... '설 황금연휴' 韓영화 신작들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극장가가 황금연휴를 노리는 작품들로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극장가에 혼풍이 불고 있다. 설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설 연휴 극장가에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를 통해 연기 변신에 성공한 송혜교와 묵직한 존재감을 선사하는 전여빈의 조합이 돋보이는 새해 첫 오컬트 영화부터 더욱 강력해진 웃음과 액션으로 찾아온 권상우 주연 코미디 영화, 원작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도경수·원진아 주연의 판타지 로맨스, 고(故) 김수미의 마지막 열정을 담은 유작인 패밀리 코미디까지 다채롭다. 설 명절 즐길 만한 극장가 영화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1. 검은 수녀들(미스터리·114분)

설 연휴 전날인 24일 개봉하는 '검은 수녀들'은 2015년 사제들의 구마 의식을 다룬 '검은사제들'의 속편이다. 주인공 '유니아' 수녀(송혜교)는 '희준' (문우진)의 몸속 숨어든 악령이 12형상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당장 울 수 없는 구마 사제를 기다리다가 부마자가 희생될 것이 분명한 상황. 결국 '유니아'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서품을 받지 못한 수녀는 구마를 할 수 없다'는 금기를 깨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담당의는 '희준'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의학이라 믿는 '바로로' 신부(이진욱)다. 우연한 기회에 그의 제자 '미카엘라' 수녀(전여빈)의 비밀을 알아챈 '유니아'는 '희준'을 병원에서 빼내기 위해 막무가내로 도움을 요청한다. '미카엘라'는 거침없는 '유니아'에게 반발심을 느끼지만, 동질감이 느껴지는 '희준'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한다. 마침내 두 수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소년을 살리기 위한 위험한 의식을 시작한다.

2. 히트맨2(코미디·액션, 118분)

설 연휴를 앞둔 22일 일찍이 개봉한 '히트맨2'는 전직 국보급 특수요원이 인기 웹툰 작가로 거듭나며 다시 한번 역대급 사건에 휘말리는 코믹 액션 영화다. 5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온 '히트맨'은 더욱 강력한 액션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빌런의 합류로 관객들을 찾는다. 육해서 그린 웹툰 '암살요원 준'의 성공으로 잠깐 흥행 작가가 된 '준' (권상우)은 시즌2 연재 시작과 동시에 '뇌질작가'로 전락한다. 망작이 된 시즌2는 되려 '준'을 노리는 글로벌 악당들의 내한 열풍을 일으킨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한번 대히트를 꿈꾸며 신작 웹툰 연재에 돌입한 '준'. 그러나 그의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하고, 국정원은 다음 야닌 '준'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적들의 위협 속 파란만장한 히트맨의 고군분투가 올 설 연휴 극장가를 웃음으로 채울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3. 말할 수 없는 비밀(판타지·103분)

동명의 대만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27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아이돌 가수로 출발해 연기자로 자리매김한 도경수의 첫 로맨스 영화로, 원작의 매력에 주연 배우들의 풋풋한 설렘이 더해져 관객들의 감성과 추억을 자극할 예정이다. 유학 중이던 피아니스트 유준은 팔뚝 치료를 위해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오게 된다. 학교에 처음 간 그날, 신비로운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도착한 연습실에서 유준은 정아와 마주치고, 운명처럼 끌린 두 사람은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진다. 하지만,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는 정아와의 만남은 계속 잊혀지고, 유준의 시선이 늘 자신을 향해 있다고 생각한 인희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정아에게 큰 상처를 입힌다. 그날 이후 사라진 정아의 행방을 찾던 유준은 정아의 비밀을 마주하게 된다.

4. 귀신경찰(코미디·107분)

김수미의 유작이 된 패밀리 코미디 영화 '귀신경찰'은 설 연휴를 앞둔 21일 스크린에 걸린다. 날벼락을 맞으며 하찮은 능력이 생긴 경찰과 그가족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얽히며 벌어지는 패밀리 코미디다. 한때 강력계 형사였지만 지구대에서 일하는 '현준' (신현준)은 집안의 골칫덩어리다. 어머니 '수미' (김수미)에게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도 정신 못 차린다'며 못한 아들이라 구박을 받고 고등학생 딸과는 사소한 일조차 소통하지 못해 '곤대' 취급을 받기 일쑤다. 영화 속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특유의 매력과 찰진 대사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김수미와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신현준의 모자(母子) 케미스트리다. '맨발의 기쁨이', '가문의 영광' 시리즈 등을 통해 어머니와 아들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이 11년 만에 '코믹 모자'로 나서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오컬트부터 코미디, 로맨스까지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한국 영화들이 극장가를 찾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관객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을 작품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최명진 기자



CINEMA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